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학교 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입론**은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시고 이후에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자 1 :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교내 음악 방송은 폐지해야 합니다.

반대자 1 : 교내 음악 방송은 유지해야 합니다. 교내 음악 방송 폐지는 휴식 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성자 2 : 교내 음악 방송은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 위주라 공부에 방해가 되고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자 2 :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또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자 : 찬성 측은 공부할 권리를, 반대 측은 음악을 들으며 쉴 권리를 근거로 각각 음악 방송의 폐지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자 1 :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방송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찬성자 1 : 억지 주장이라고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사회자 : 잠깐만요, 양측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찬성자 1 : 네.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자 2 : 짧은 방송 시간에 여러 장르 음악을 섞어 들으니,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들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아니면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교내 음악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실뿐이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찬성자 2 : 우리에게 도서관으로 가라고 하고, 반대 측은 지금처럼 교실에서 계속 음악 방송을 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 아닌가요? 우리도 교실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반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회자 : 네. 양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교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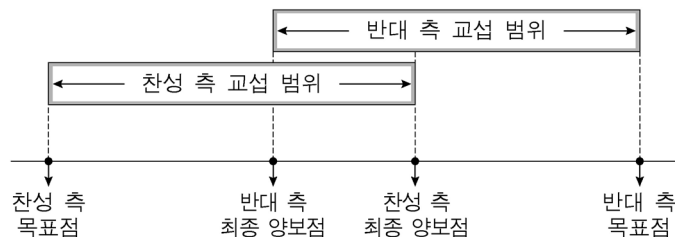
1.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 ② 토론의 진행 절차에 맞게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③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④ 토론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 개입하고 있다.
 - ⑤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론**에서 ‘찬성자 2’는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찬성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 ② **입론**에서 ‘반대자 2’는 음악 감상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언급하며 ‘반대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 ③ **반론**에서 ‘반대자 1’은 음악 감상이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입론의 ‘찬성자 2’가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④ **반론**에서 ‘찬성자 1’은 음악 장르 분류의 어려움을 들어 반론의 ‘반대자 1’이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 ⑤ **반론**에서 ‘찬성자 2’는 도서관 개방 시간의 제약을 들어 반론의 ‘반대자 2’가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국어 영역(B형)

3. 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협상을 한다고 할 때, <보기 1>의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기 1>-

협상의 당사자들은 서로의 교섭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교섭 범위란 협상 당사자 자신의 목표점에서 최종 양보점까지의 영역을 의미한다.



-<보기 2>-

- ㄱ.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한 음악으로 음악 방송을 편성한다.
- ㄴ. 학급별로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반별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결정한다.
- ㄷ. 음악 방송을 듣기 싫은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공부한다.
- ㄹ.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내 음악 방송의 시간을 연장한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perp, \sqsupset$ ⑤ $\sqsubset, \sqsupset$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성민: 환갑 넘으신 할머니께서 강사로 나오시고, 오늘 특강 참 특별했어.

해경: ㉠ 맞아. 나도 오늘 특강 정말 좋았어.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

성민: ㉠ 나도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어.

혜경 : 병수야! 너도 좋았어?

병수: ㉔ 글쎄…….

혜경 :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병수: 나는 할머니 말씀이……. 뭐랄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어. 우리는 지금도 늘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도 무엇인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성민: ㉔ 너는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혜경: ㉔야, 김병수! 왜 그렇게 심각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

병수: 그렇가? 사실 요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아. 며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성민: [(a)]

병수: 맞아, 네 말대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 거 같아.
조언해 줘서 고마워.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
- ② ㉡: 특강 시간에 들었던 말을 인용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 ③ ㉢: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하여 상대의 생각에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상대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말을 비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화를 통해 상대의 행동에 대해 조언할 때는 상대 행동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해 주고,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 ① 네가 혼자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네 주변의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 보는 게 어때?
- ② 네가 인생 경험이 짧운데 혼자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가 생길 것 같아? 인생 경험이 많은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도록 해.
- ③ 요즘 여러 가지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다. 그런데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게 어때?
- ④ 네가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 삶의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 ⑤ 요즘 너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 다만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혼자 차분히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거야.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6~7] <보기 1>은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논설문의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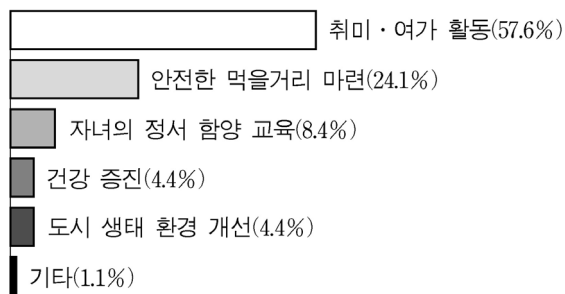
—<보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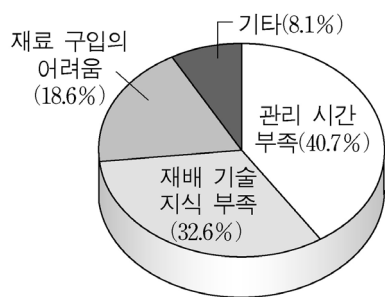
최근 도시민의 여가 활동 증가로 도시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 농업은 도시 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 농업은 도시 생태 환경 개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정서 함양, 공동체 의식 형성 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의 농지가 매년 감소하여 경작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시 농업 관련 기술이 낙후되었고 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나) 설문 조사

1.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이유



2. 도시 농업 활동에서 겪은 어려운 점



(다) 인터뷰

“우리나라는 제약 요인이 많아 도시 농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는 도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 건축법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에서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도시 농업을 위한 일정 공간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계적인 도시 농업의 메카인 쿠바는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많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농업 연구소장 -

—<보기 2>—

I. 서론

II. 본론

1. 현황

- 가. 도시 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 나. 귀농 인구의 증가㉠
- 다. 도시 농업 활동의 부진

2. 문제점 분석

- 가. 도시 농업에 필요한 경작 공간의 부족
- 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
- 다. 도시 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 부족
- 라. 인력 부족㉢
- 마. 도시 농업의 제도적 기반 미흡

3. 개선 방안㉣

- 가. 도심지 내 마을 텃밭 조성㉤
- 나. 도심지 내 주말 농장 확대㉥
- 다. 도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 라. 도시 농업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III. 결론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참고하여 ‘II-1’을 작성할 때, ㉠은 주제와 연관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② (나)-1을 참고할 때, ㉡은 문제점이 아니므로 ‘II-1-다’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③ ㉢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가)를 참고하여 ‘도시 농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고친다.
- ④ (나)-2, (다)를 참고할 때, ㉣의 하위 항목에 ‘도시 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가한다.
- ⑤ (가)를 참고하고 ‘II-2-가’를 고려할 때, ㉤과 ㉥을 하나로 묶어 ‘도시 농업 공간 확보’로 수정한다.

7. <보기 2>의 ‘I. 서론’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 건>—

-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을 인용할 것.
-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

- ① 도시 농업이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 농업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도시 농업의 기능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보자.
- ②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도시 농부들이 전국 각지에서 생겨나고 있다. 도시 농부가 되려는 도시민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 ③ 텃밭을 가꾸어 거둔 농작물을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이웃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도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도시 농업이 국내 도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 ④ 도심지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워 보니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시 농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⑤ 도시 곳곳에 푸른 텃밭이 늘어나고 있다. 텃밭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도시 농부로서의 행복을 누린다는 도시민이 증가하는 것이다. 텃밭 가꾸기를 배우며 도시 농업의 즐거움을 만나 보자.

8.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보기>를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번지점프는 탄력성이 있는 줄에 몸을 고정하고, 50m 정도의 높이에서 수면이나 지면을 향해 뛰어내리는 스포츠이다.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낙하할 때의 긴장과 두려움을 즐기며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번지점프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뛰어내리기 바로 직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번지점프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의 번지점프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기 위한 전통 의식이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소년들은 등나무 줄기에 몸을 묶어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땅을 향해 뛰어내린다. 자칫하면 땅에 부딪힐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의식이지만 소년들은 기꺼이 도전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어른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조 건>—

-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포함한다.
-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을 추가하지 않는다.
- 반복된 내용이나 부가적인 내용은 압축한다.

- ① 번지점프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긴장감과 자유를 즐기는 스포츠이다. 이는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한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유래하였다.
- ② 바누아투 공화국에서는 높은 곳에서의 점프를 통해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는 전통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번지점프의 기원이다.
- ③ 번지점프는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는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번지점프는 어린 소년들이 수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가혹한 것이다.
- ④ 번지점프는 밧줄을 몸에 고정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이다. 이것은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땅을 향해 점프하는 소년들은 매우 용맹한 전사와 같다.
- ⑤ 번지점프는 높은 곳에서 점프하며 그 순간의 긴장과 자유를 즐기는 스포츠이다.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눈앞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번지점프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우리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하여 자기 성찰의 글을 써 보자.

작문 일시

오늘 작문 과제는 우리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한 자기 성찰의 글쓰기였다. 작문 과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까 생각해 보았다. 문화유산은 종류도 다양하여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마침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이 생각나서 아리랑을 소재로 정하고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나의 성찰이 부각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 고민했다. 그다음,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완성했다.

학생의 글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 이상 우리 세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삼일절에 인사동에 갔다가 우연히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잠시 후에 첼로, 비올라 연주자들과 단소, 북 연주자들이 연이어 나와 합주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관객들 사이에 있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주에 맞추어 함께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랫소리는 악기와 어우러져 한껏 분위기를 ㉡돋구었다. 어느새 구경만 하던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거리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노래에 나는 벅찬 감동을 받았고 서양 악기와 우리 악기 간의 조화로움에 감탄하게 되었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아리랑을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며칠 후, 그때의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찍어둔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다. 친구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문화유산은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리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9. ‘작문 일시’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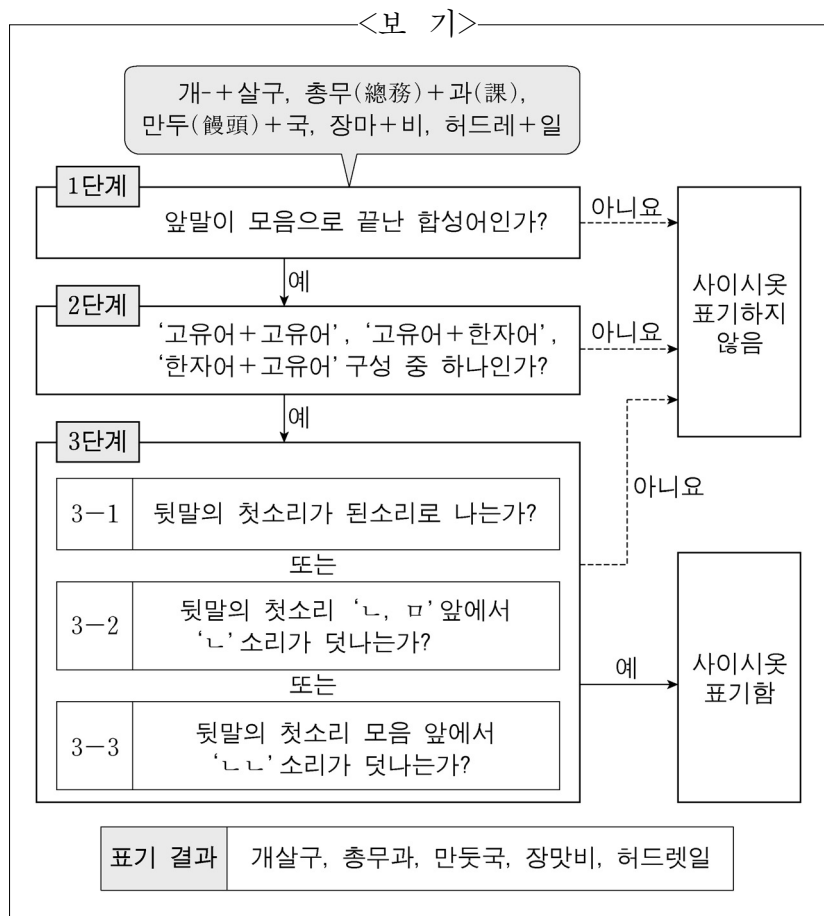
- ㉠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다.
- ㉡ 문화유산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정의의 방식을 사용한다.
- ㉢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한다.
- ㉣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자신의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러자’로 고친다.
- ② ㉡: 부적절한 어휘이므로 ‘돋우었다’로 고친다.
- ③ ㉢: 어문 규범에 어긋나므로 ‘무형 문화유산으로서’로 고친다.
- ④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친다.
- ⑤ ㉤: 문맥상 시점이 과거가 아니므로 ‘된다’로 고친다.

11.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12. 다음은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질문: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같은 받침 ‘교’인데 [교]와 [비]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답변: ‘앞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교’을 ㉠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반면, ‘앞’과 ‘앞이’ 결합한 ‘앞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받침을 ㉡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됩니다. ㉠과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 ① ‘무릎이야’는 ㉠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는 ㉡에 해당합니다.
- ② ‘서넛이나’는 ㉠에 해당하고 ‘서넛에서’는 ㉡에 해당합니다.
- ③ ‘걸으로’와 ‘걸아가미’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④ ‘배꽃이’와 ‘배꽃 위’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⑤ ‘빛에’와 ‘빛이며’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13.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u>대하지</u>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u>지내기도</u>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u>되지는</u> 못했다.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u>존경했다</u> .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u>유학자이다</u> .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②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 ③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 ④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 ⑤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14.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 2>—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 선생님: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 학 생: 3시부터 도서관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 어머니: 학교 늦겠어! ㉡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 아 들: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 학생 A: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 학생 B: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 언 니: ㉣ 어쩔 이럴 수 있니?
 - 동 생: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 |
| ① | 가 | 나 |
| ② | 가 | 다 |
| ③ | 나 | 라 |
| ④ | 다 | 나 |
| ⑤ | 다 | 라 |

15.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	‘장식품’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품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16. <보기 1>의 (가), (나)에 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 2>의 ㉠~㉣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 (가) ㅇ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셔 쓰면 입시울 가비야쁜 소리 득외느니라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나)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굴바 쓰라
[풀이]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나란히 써라.

—<보기 2>—

나랏 말싸미 中囡國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 ㅁ츨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흙 노미 하니라 내 이룰 爲형 ㅎ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들 字꼳를 ㉡ ㅁㅇ노니 사릅마다 ㅎ여 ㉢ 수뵈 니겨 날로 ㅼ메 便便安한키 ㅎ고져 ㅎ ㉣ ㅅ르미 나라

-『훈민정음』 언해-

- | | | | | | |
|---|-----|-----|---|-----|-----|
| | (가) | (나) | | (가) | (나) |
| ① | ㉠ | ㉡ | ② | ㉠ | ㉢ |
| ③ | ㉡ | ㉣ | ④ | ㉢ | ㉡ |
| ⑤ | ㉣ | ㉣ | | |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희와 정약용은 ㉠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희는 ‘명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 기관이다.
- ②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 ③ 주희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1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은 일치한다.
- ② 주희와 정약용 모두 ㉠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을 강조하였다.
- ③ 주희는 ㉠을 ‘효’, ‘제’, ‘자’라는 구체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⑤ 정약용은 ㉢이 고본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19.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 ②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다르다고 보았다.
- 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 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20.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인도(引導)해야
- ② ㉡: 지시(指示)해야
- ③ ㉢: 개편(改編)했다
- ④ ㉣: 도착(到着)할
- ⑤ ㉤: 쇄신(刷新)하고자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하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되고, 심지어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 단토의 ‘미술 종말론’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 하나이다.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아주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 이는 창조의 자유가 예술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를 앞당겼다. 즉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건장한 이탈리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렸던 사례에서 보듯,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들은 신이나 성인(聖人)을 그리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친근한 일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19세기 낭만주의에 와서는 내면의 무한한 표출이 예술의 생명 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은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토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이다. 이전 시대까지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은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어떻게 그리는가?’의 문제, 곧 내용·형식·재료처럼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가능했다. 반면, 20세기에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되는 데에서 보듯, 전시적 요소로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할 따름이다. 현대 미술이 미술의 개념 자체를 묻는 일종의 철학이 되고,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이론적 행위로서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1.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명의 시작은 주문에 따른 제작에서도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출한 사건이었다.
- ② 예술가의 자율적인 이미지 창출은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다.
- ③ 형식의 자율화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로부터 비롯되었다.
- ④ 현대 미술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작품의 자격을 결정한다.
- ⑤ 현대 미술에서는 비평이 전시적 요소를 결정한다.

22. ㉠에 따라 ‘20세기 미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 ② 자연 그대로의 사물을 전시하는 것도 작품 창작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되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 ④ 미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본질적이다.
- ⑤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23.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뒤샹의 <샘>은 소변기에 서명을 하여 전시함으로써 일상품도 이론적 해석에 따라 미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 ②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그림에 벽지를 덧붙여 회화를 3차원화함으로써 회화는 2차원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작품이다.
- ③ 폴록의 <1950년 32번>은 캔버스에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려 즉흥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무의식과 초현실 세계의 표현을 시도한 작품이다.
- ④ 칸딘스키의 <콤포지션 VII>은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 대신 추상적인 색·선·형태만으로 작가의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순수 이미지의 언어적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 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수많은 네모 무늬로 수직·수평의 율동적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뉴욕의 활기찬 생활과 음악적 리듬감의 표현을 추구한 작품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하였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 공동 소송을 하여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갑과 같은 이를 선정 당사자로 삼아 그에게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만 배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집단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소송의 개시가 쉽지만은 않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 단체가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 소송은 공익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최근에 ㉡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었다.

24.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 ② 대립하는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하였다.
-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⑤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였다.

25.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②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 ③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시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 ④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26. ㉠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②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③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 ④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⑤ 개인 정보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27. ㉡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홀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뻗을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뻗을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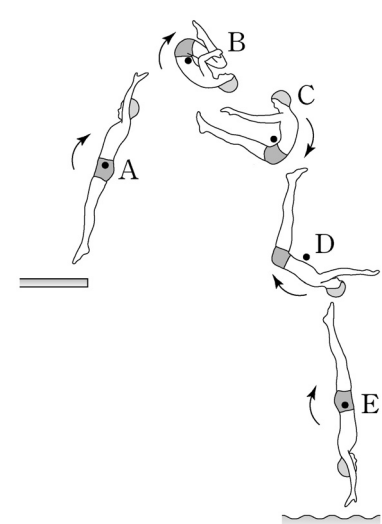
2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든다.
-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30. 다음 글을 읽기 전에 정리한 ‘알고 싶은 점’ 중,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2세기 이전까지 유럽에서의 독서는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로 성경이나 주석서를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2세기 들어 그리스 고전이 이슬람 세계로부터 대거 유입되고 학문적 저술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독서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독서는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저서를 두루 구해 읽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책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다양한 참고 도서의 발행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텍스트가 장, 절로 나누어져 있고 중요한 구절 표시가 있는가 하면, 차례나 찾아보기 같은 보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독자들은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고, 이렇게 얻은 지식들을 논증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고 도서를 위주로 한 독서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원전 독서를 등한시하여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맛볼 수 없게 되었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이점은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었다.

【알고 싶은 점】

- 이 시기에는 어떤 책들이 유행을 했을까? ①
- 이 시기의 독서법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②
- 이 시기에 독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③
- 이 시기의 독서법은 이전 시기와 어떻게 다를까? ④
- 이 시기 책의 저자와 독자는 어떤 계층이었을까? 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영(梅影)이 부드친 창(窓)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겨신저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리코다
이윅고 잔 드리 권(勸)하랴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제3수>

브름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허인들 봄뜻이야 아슬소나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치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제 엇지 감히 뛰리
알패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밭게 뉘 이시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금차: 미인의 금비녀.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6수는 대상이 시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제8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리’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② ‘잔 드러 권하랴제’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다. 그 조상은 농서(隴西) 출신이다. 90대(代) 선조였던 모(牟)가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모(牟)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 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구공이 사이에서 귀천 없는 교분을 맺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중략)

[B]

순은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①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萬頃蒼波) 같으며,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대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자못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일찍이 섭법사(葉法師)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탄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호를 ‘국(麴) 처사’라 하며 공경대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으며,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슬퍼하여 말하기를, “국 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했다.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음이 이와 같았다.

산도(山濤)라는 이는 감식안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린아를 낳았을까?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

관부(官府)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靑州從事)*를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 다시 평원독우(平原督郵)*를 시켰다. 얼마 후 탄식하기를,

㉡ “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 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곧추 서서 담론하리라.”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엔 불그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진 후주(陳後主) 때에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 주었고, 공(公)의 작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 없었다.

[C] 이후로 임금은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은 ㉣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돌았다.

순은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소?”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 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나이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료!”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 “신(臣)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순은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다.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우뻘 되는 청(淸)이, 훗날 [D] 당 나라에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은 이렇게 말했다.
“국 씨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울창주(鬱鬯酒)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했으니, 가히 그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 단지와 술상 사이에서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山濤)의 말을 죽히 믿을 만하다.”

- 임춘, 「국순전」 -

* 청주종사: 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좋은 술. ‘높은 벼슬’을 뜻함.

* 평원독우: 명치 위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좋지 않은 술. ‘낮은 벼슬’을 뜻함.

* 출사: 벼슬에 나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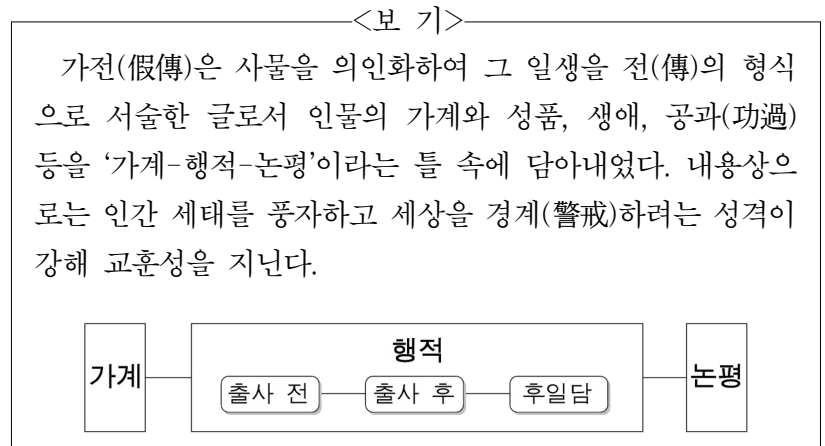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국순의 성품을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넓고 깊은 국순의 마음을 의미한다.
- ② ㉡은 국순의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 국순이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경고한다.
- ③ ㉢은 불만족스러운 처지와 이를 넘어서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국순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 ④ ㉣은 국순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맡았던 소임을 기술한 것으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면모를 부각한다.
- ⑤ ㉤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선조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난 국순의 의지를 드러낸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가문 내력을 소개하는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주인공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B]와 [C]는 주인공의 행적을 구분하여 [B]에서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하고 있군.
- ③ [C]에서 형상화된 주인공의 행적으로부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D]는 후대의 가문 내력을 기술하여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는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여 인간 세태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37. ㉠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구무언(緘口無言) ② 중언부언(重言復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 ⑤ 어불성설(語不成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 열렬한 고독 가운데
웃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쫓아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툰이처럼 해해대지만 ㉕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㉖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붙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A]

[B]

[C]

- 신경림, 「농무」 -

3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39. (가)의 「나」와 ㉑~㉖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② ㉒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③ ㉓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㉔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㉕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폐쇄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 ④ ㉔과 ㉕을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⑤ ㉖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긐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채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찡끔찡끔 번지

고, 침이 걸려서 캐깅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켜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군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결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 —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 최인훈, 『광장』 -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회상을 통해 대조적 체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42. **난파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이다.
- ② 정주할 곳에 도달한 존재이다.
- ③ 환상이 허황됨을 알아차린 존재이다.
- ④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는 존재이다.
- ⑤ 현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존재이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당대에 금기시되던 이념 대립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점에서 전후 분단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간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만이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장』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①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 선택을 마치고 난 후에 보인 반응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② 개인의 이익보다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가 드러나 있어. 개인의 행복한 삶을 마다하고 낯선 땅으로 가려는 주인공의 선택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③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기에 급급한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어.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사람들을 피는 마술사의 속임수를 비꼬듯 이야기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④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이들을 격리하려는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어. 항구를 차지한 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을 감금하려 한다는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⑤ 이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에서 누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기술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썩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툄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툄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시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이근삼, 「원고지」 -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여 장남의 말과 배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을 제시하여 교수가 처한 상황과 교수의 신분을 관객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 ⑤ ‘철쇄’를 풀어 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근삼 희곡에는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에게 인물·사건·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설자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장남의 대사는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 ③ 장녀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준다.
- ④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 ⑤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